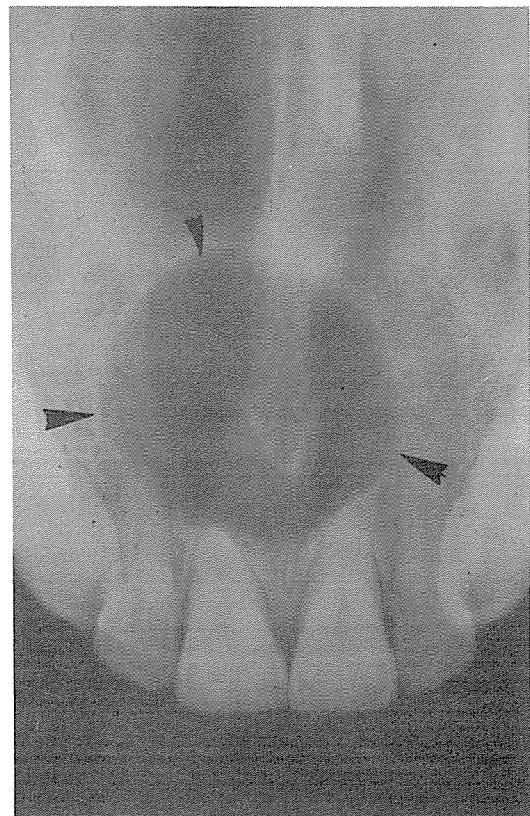


비구개 낭종은 incisive canal이나 incisive papilla에서 발생하며, incisive canal cyst, median maxillary cyst 또는 nasopalatine duct cyst라고도 하며, 상악골에 발생하는 non-odontogenic cyst의 대부분을 차지하고, 여자에 비해 남자에서 약 3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며 인종에 따른 발생의 차이는 인정할 수 없다.

임상적으로 크기가 작은 경우 증상이 없으나 성장함에 따라 Palatine papilla 후방에 파동성의 종창이 나타나며, 낭종이 큰 경우에는 순족 계대 하방이나 중절치 좌·우측에서 종창을 볼 수 있으며 주위 신경을 압박할 경우 감각 이상이나 작열감을 느낀다. 낭종 삼출물이 구강내로 배출될 때 짠맛을 느끼며 치아는 생활치수검사에 정상으로 반응한다.

방사선적 소견으로는 명료한 경계를 갖는 난원형 또는 원형의 골 파괴상이 상악 중절치 치근단 부위에서 관찰되고 전비극 또는 비중격에 중첩되면 heart 모양을 보인다. 대부분의 경우 치근단 부위의 치조백선은 정상이며 가끔 치근의 외흡수가 나타날 수 있다.

감별 진단해야 할 것에는 절치공파 절치와, 그리고 원시성 낭종, 각화성 낭종, 치근단 낭종 등이 있고, 수직각의 변화와 치조백선의 존재 유무가 감별 진단에 도움을 준다.



## 정우치과기공소

### Jung Woo Dental Lab.

전화 765-0606, 743-6633

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제동 145번지  
(혜암빌딩 5층)